

#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 유가 급등에도 AI는 간다

- 미국 증시 3대 지수 사상 최고가 경신..러셀2000은 하락
- 미국-이란 종전 협상 중단 우려에 국제유가 급등
- 엔비디아발 'AI PC' 관련 기술주 랠리

### Summary

#### 미국증시 상승: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

6월 1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중단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진화하고 나섰고 엔비디아가 PC용 CPU를 출시하며 AI 노트북 시장에 진출할 것을 천명하자 엔비디아를 비롯한 관련주가 지수를 견인함.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가 0.09% 상승한 51,078.88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0.26% 상승한 7,599.96에 마감. 나스닥 지수는 0.42% 상승한 27,086.81에 거래를 마칩. 3대 지수 모두 이날 상승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 다시 경신. 다만 이날 지수의 상승은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바, 중소형주 중심 러셀2000지수는 전일에 이어 0.47% 하락 마감.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변동성 지수 VIX는 4.77% 반등해 16.05에 마감.

(다우 +0.09%, 나스닥 +0.42%, S&P500 +0.26%, 러셀2000 -0.47%)

#### 미국-이란 협상 최대 변수로 떠오른 '레바논'

미국과 이란간 휴전 연장 및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의 최대 변수로 레바논이 다시 떠오름. 이날 이란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4월 8일 체결한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 이란은 당시 휴전이 이란 본토를 넘어 레바논 내 동맹 세력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공격 중단을 의미했다며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은 휴전 위반이라고 강조. 앞서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군에 베이루트 남부 교외 헤즈볼라 핵심 거점 다히예 지역을 공격할 것을 명령. 이란 군 지휘부는 다히예 공격이 현실화될 경우 북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

이란 반관영 매체 타스님 통신은 관련해 이란 협상 대표단이 중재국을 통한 미국과의 모든 메시지 교환을 중단할 예정이며 테헤란도 호르무즈 해협 전면 폐쇄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 또 예멘 후티 반군의 본격 전쟁 참여를 시사하는 한편 홍해 남단 바브엘만데브해협 등 다른 해상 통로에 대한 봉쇄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생산적 통화를 했으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서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또 이란과의 협상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협상 결렬 가능성을 부인.

이날의 움직임은 그간 양국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여겨졌던 핵 프로그램과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뿐 아니라 레바논 전선이 협상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등장했음을 보여줌.

### 엔비디아, 'AI PC' 칩 발표

다만 이날 시장은 미국-이란 협상 결렬 가능성으로 인한 유가 급등보다는 엔비디아 '컴퓨텍스 2026'에서 나온 이슈들에 더 크게 반응함. 이날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6' 기조연설에서 회사의 첫 윈도 PC용 프로세서인 RTX 스파크를 공개. 이 칩은 AI 모델과 AI 에이전트를 데이터센터 기반 클라우드가 아닌 PC 내부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엔비디아는 이를 통해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 시장을 넘어 PC 시장까지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계획. 엔비디아의 칩이 탑재된 PC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브랜드 '서피스'를 비롯해 델, HP, 레노버, ASUS 등의 다른 주요 컴퓨터 제조사들을 통해 출시될 예정.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RTX 스파크가 기존의 앱 중심 PC를 진정 유용한 에이전트형 AI 개인용 컴퓨터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지금 PC 부문에서의 'RTX 스파크 모먼트'" 라고 평가. 이 이슈는 엔비디아와 엔비디아 AI PC 칩을 탑재할 PC 제조사, 그리고 산업 생태계 확대 과정에서 함께 성장할 소프트웨어 관련주에 호재로 반영돼 이날 대형 기술주 중심의 시장 상승을 주도함.

### 미국 5월 제조업 경기 '확장세'

미국의 5월 제조업 경기가 확장세를 지속. 공급관리협회(ISM)은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4.0을 기록했다고 발표. 이는 전달 52.7에 비해 1.3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며 시장 예상치 53.0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 이로써 미국 ISM 제조업 PMI는 5개월 연속 기준선 50 위에 머물러 확장 국면에 있음을 나타냄. 세부적으로는 신규 주문 지수가 5개월 연속 성장세로 56.8을 기록. 고용 지수는 48.6으로 32개월째 위축 국면에 머물렀지만 전달 대비로는 2.2포인트 상승함. 가격 지수는 82.1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달보다 2.5포인트 낮아져 제조업 가격 상승의 속도가 미세하게 둔화됐음을 반영. 재고 지수는 49.9로 전달 대비 소폭 개선됐지만 13개월째 위축 국면에 머무름. 대체로 신규 주문과 생산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고용과 재고는 여전히 위축된 상황.

한편 S&P글로벌이 집계한 5월 제조업 PMI 확정치는 55.1을 기록해 시장 예상을 소폭 하회.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는 "얼핏 보기에 제조업이 질주하고 있는 것 같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다"며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기업들이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을 우려해 재고 축적에 나섰고 그 결과 생산과 수요가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지적.

## 특징종목

### 엔비디아 급등-인텔 퀵컴은 하락

엔비디아(+6.26%)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6'에서 PC용 AI 프로세서를 공개하며 크게 상승. 이번 프로세서 개발에 엔비디아와 협력한 마이크로소프트(+2.28%)

역시 AI PC 생태계 확대 기대감에 상승. 이외 새 칩이 탑재된 PC를 생산할 것으로 알려진 델 테크놀로지스(+10.70%)가 실적 발표 후 전 거래일 급등한데 이어 추가 상승했고 HPQ(+8.51%)도 같은 이유로 상승. 엔비디아가 신형 칩 개발 과정에서 기술을 활용한 에이알엠홀딩스(+15.73%)도 급등.

마이크론 테크놀로지(+6.64%)는 컴퓨텍스 2026에서 AI 최적화 메모리 및 저장장치 제무군을 선보인다는 소식에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실적 발표를 앞둔 브로드컴(+2.95%)은 모건스탠리, HSBC 홀딩스, 오픈하이머 등이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가운데 상승.

다만 기존 PC용 칩 시장 내에서 우위를 점해왔던 AMD(-1.16%), 인텔(-4.67%), 퀄컴(-8.78%) 등은 경쟁 심화 우려에 하락. 이들이 AI 칩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엔비디아의 독보적 기술력과 규모의 경제를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이 우세함. 애플(-1.84%) 역시 AI 에이전트 활용이 어려운 맥북 프로 노트북이 윈도 노트북에 밀릴 것이라는 우려 속에 약세.

애플 이외에도 AI 관련 반도체 등을 제외한 빅테크 종목들은 대체로 하락했는데 아마존닷컴(-3.48%)이 유럽연합의 클라우드 서비스 규제 강화와 아동 안전 관련 법적 소송 영향으로 하락했고 메타 플랫폼스(-5.04%) 역시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 조사와 미성년자 사용자 접근 문제로 인해 비교적 큰 폭 하락.

### 소프트웨어 강세 지속

최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 이른바 'SaaSocialypse', 즉 AI 산업 발전에 따른 소프트웨어 종말론이 다소 약화되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강하게 반등. 실적 발표 이후 사상 최고가를 경신 중인 스노우플레이크(+9.63%)가 이날도 큰 폭 추가 상승했으며 이외에도 옥타(+13.40%), 서비스나우(+9.24%), 오라클(+9.91%),아틀라시언(+7.75%) 등이 동반 상승.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10.46%)는 반도체 설계용 AI 에이전트를 공개했는데, 이를 통해 반도체 설계와 검증 과정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평가. 배런스는 엔비디아가 이미 케이던스 디자인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수백만 건의 설계를 검증하고 있다고 전해. 이같이 AI 생태계 확장 과정에서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소프트웨어 기업은 산업 발전 과정에서 성장세를 더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

### 유가 급반등에 에너지주도 반등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이스라엘의 레바논에 대한 공격 지속을 휴전 협정 위반으로 규정 지으며 중단될 가능성에 국제유가가 급등. 이에 최근 유가 하락으로 약세였던 에너지 관련주가 반등. 업스트림에서 셰브론(+1.85%), 엑슨 모빌(+2.84%), 옥시덴탈 페트롤리엄(+4.04%), 코노코 필립스(+1.40%), EOG 리소시스(+2.43%) 등이 상승했고, 유전 서비스

업체 슬림버거(+0.37%)도 소폭 상승. 할리버튼(+1.29%)도 강세.

### 이외 특징주

서버 제조사 휴렛 팩커드 엔터프라이즈(HPE)(+9.20%)가 정규장 마감 이후 전분기 실적을 발표. HPE는 전분기 매출이 106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40% 성장했다고 밝혔고 주당 순이익은 79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힘.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며 전분기 순이익은 지난 2018년 이후 최대 규모. 특히 전반적 클라우드&AI 매출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였지만 특히 서버 부문의 성장세가 돋보였음. HPE의 서버 매출은 54억 5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 46억 6천만 달러를 가볍게 뛰어 넘음. 회사는 연간 EPS 가이드선도 기존 전망 대비 대폭 상향. 안토니오 네리 CEO는 “서버 예약 잔고가 이제껏 보지 못한 수준으로 쌓여있다”고 설명. 이에 HPE는 시간외 거래에서 30% 이상 급등.

구글 모회사 알파벳(-1.04%)은 장 마감 이후 800억 달러 규모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 알파벳은 버크셔해서웨이로부터 투자받은 100억 달러를 포함해 800억 달러어치 주식을 매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마련한 자금은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힘. 앞서 지난 4월 알파벳은 연간 자본 지출 규모를 최대 1,900억 달러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던 바 있음. 알파벳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2% 안팎 약세.

비트코인 가격 약세가 지속. 지난밤 73,000달러에 이어 72,000달러, 71,000달러도 하회하는 하락 방향성을 유지하며 4월 12일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이에 코인베이스(-3.40%), 로빈훅 마케츠(-3.79%), Proshares Bitcoin ETF(BITO)(-2.66%) 등 관련주도 약세.

##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 협상 중단 우려에 국제유가 급등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중단 우려를 반영해 급등.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에 대한 공격은 ‘휴전 위반’이라고 규정했으며 이란 반관영 매체 타스님 통신은 이란 협상 대표단이 중재국을 통한 미국과의 모든 메시지 교환을 중단할 예정이며 테헤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폐쇄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보도. 나아가 예멘 후티 반군의 본격적인 전쟁 참여와 홍해 남단 바브엘만데브해협 등 다른 해상 통로 봉쇄 방안 검토 가능성도 시사. 이 소식에 국제유가가 급등, 브렌트유는 장 중 7% 이상 상승해 배럴당 97달러선을 돌파했고 WTI도 8%대까지 오름폭을 확대.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 결렬 가능성을 부인하며 상승폭은 축소.

ICE 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증가는 전 거래일 대비 4.2% 상승한 배럴당 94.98달러를 기록.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 증가는 5.5% 상승한 배럴당 92.16달러를 기록. 유럽 천연가스 시장의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선물 근월물은 5.05% 급등.

국제 금 가격은 유가 급등이 기대 인플레이를 자극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

감 속에 하락.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 코멕스(COMEX)에서 8월 인도분 금 선물은 1.77% 하락한 트로이온스당 4,511.90달러를 기록. 사흘만의 하락. 7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도 0.6% 안팎 하락, 온스당 75달러 중반대를 기록.

### 미 단기 국채금리 상승

미 국채 금리는 단기물이 상승하고 장기물이 하락하는 혼조 양상. 이란 쪽에서 나온 협상 중단 움직임을 트럼프 대통령이 진화하려 나서 초반 상승하던 국채금리가 오름폭을 줄이거나 하락 전환했고 제조업 인플레이 압력이 다소 둔화했음을 반영하는 지표가 나온 것도 금리 상단을 제한함.

2년물 금리가 3.90bp 상승한 4.053%를 기록했고 10년물 금리는 2.40bp 상승한 4.477%를 기록. 30년물 금리는 0.2bp 하락한 4.991%를 기록.

시카고 상품 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 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48%대로 전장 대비 낮춰 반영. 연내 금리를 한 번 인상할 가능성은 39% 수준, 두 번 인상할 가능성은 12% 수준을 기록했으며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제로로 집계.

### 달러 강세..오름폭은 축소

미국 달러화 가치는 상승. 장 초반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공격을 이유로 미국과 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소식에 유가가 급등하는 한편 달러도 강세 압력을 받음.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태 진화에 나서며 협상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자 오름폭은 축소.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99.191로 0.301% 상승함. 천연가스 가격 급등과 함께 유로-달러 환율은 0.285% 하락해 달러 강세-유로 약세를 반영. 파운드-달러 환율도 0.079% 하락.

야간 거래에서 달러-원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1,504.30원 대비 8.60원 상승한 1,512.90원에 마감.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1.10원)를 고려하면 전장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10.20원 상승한 1,513.40원을 기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